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3

<http://sri.kostat.go.kr>

2023



통계청

통계개발원

비혼 동거 가족의 특성

이윤석 (서울시립대학교)

- 5년 사이 동거와 무자녀 결혼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며, 특히 2020년에는 20대와 30대 청년 중에서 동거와 무자녀에 동의하는 경우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많았다.
- 혼인신고를 한 혼인부부에 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사는 동거커플에서 20~30대 청년층 비율이 매우 높다. 동거커플은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제도나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상대를 확인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 동거커플은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주거 지원 제도 이용 제한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3명 중 2명은 결국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 있다.
- 가사노동 분배와 생활의 계획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책임을 진다는 응답은 혼인부부보다 동거커플에서 훨씬 많았다.
- 경제적 차원의 결정은 혼인부부와 동거커플 모두 생활비 지출에서는 아내가, 취업 및 직장이동에서는 남편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는 비율이 높았으나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결정하는 비율은 동거커플에서 더 높다.

결혼이나 출산 가족형성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가능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결혼을 하지 않는 남녀가 같이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이 살 수도

있으며,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자녀를 가질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이 글에서는 2015년과 2020년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독신, 동거, 무자녀, 비혼자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커플과 혼인신고를 한 혼인부부들의 동거생활과 혼인생활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가족형성에 대한 태도

독신에 대한 태도

[그림 II-10]은 2015년과 2020년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된다는 진술의 동의 정도 분포와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

두 번의 조사에서 독신에 대한 태도는 평균값이 2.8~2.9점으로 중간값인 3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독신보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함을 보여준다. 조사가 이루어진 5년 사이 독신에 대한 태도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20~30대 청년층의 독신에 대한 태도는 2015년 3.1점에서 2020년 3.3점으로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독신에 대해 더욱 우호적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조사에서 청년층 중 18.0%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청년층이 독신을 의미 있는 선택지 중 하나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5년 사이 달라진 의견의 분포를 보자. 독신으

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리고 '대체로 그렇다'라는 의견은 2015년 조사 결과가 2020년에 비해 더 높다. 반면 극단의 '전혀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 대비 2020년 각각 2.1%p와 3.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청년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같은 시기 8.8%p 증가하였다.

동거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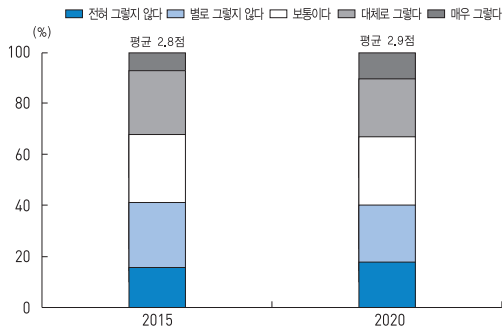
[그림 II-11]은 「가족실태조사」에서 성인들에게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진술을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이다.

동거에 대한 태도를 보면 평균값이 2015년 2.5점, 2020년 2.6점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데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조사기간 동안 동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은 5.8%p 줄어든 반면 긍정적 인식('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은 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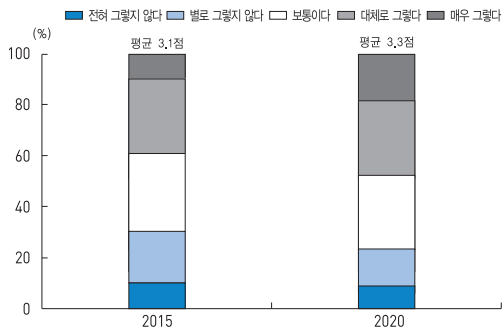
20~30대 청년층의 동거에 대한 태도는 2015년 2.8점에서 2020년 3.2점으로 평균값이 상승하였다. 이는 중립적 의견이라 할 수 있는 3점을 넘어선 수치다. 특히 2020년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인식('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은 청년층 중 40.6%에 이른다.

[그림 II-10] 독신에 대한 태도, 2015, 2020

1) 전체 성인



2) 20~30대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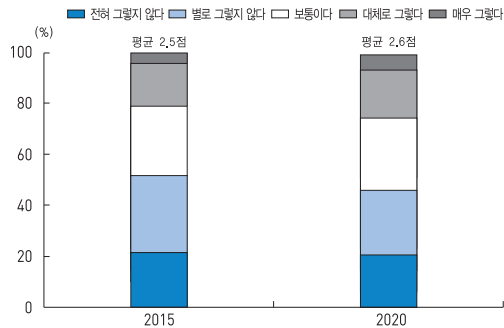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2015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2020년)라는 진술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과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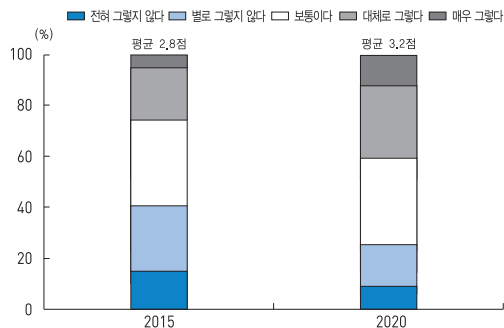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II-11] 동거에 대한 태도, 2015, 2020

1) 전체 성인



2) 20~30대 청년



주: 1) 통계치는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2015년),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2020년)라는 진술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과 비율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무자녀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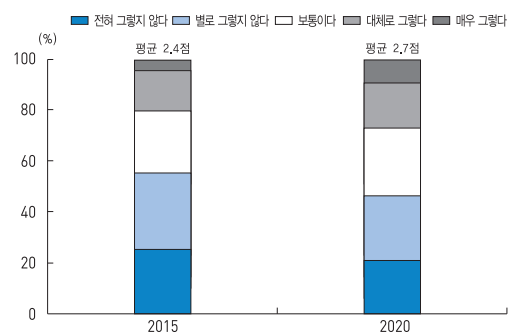
[그림 II-12]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진술의 동의 정도 분포와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

무자녀에 대한 태도 역시 동거에 대한 태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평균값은 2015년 2.4점, 2020년 2.7점으로 5년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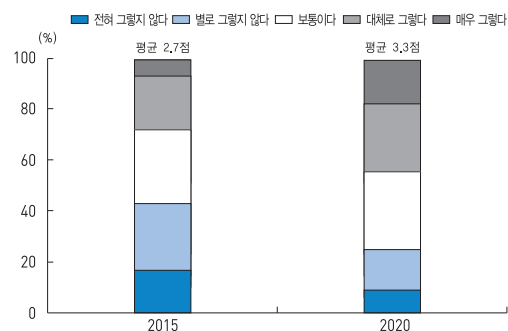
0.3점이 상승하였지만 성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자녀가 없는 결혼생활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는 질문에 부정적 인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은 9.0%p 줄어든 반면 긍정적 인식(‘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은 6.5%p 증가한 것

[그림 II-12] 무자녀에 대한 태도, 2015, 2020

1) 전체 성인



2) 20~30대 청년



주: 1) 통계치는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2015년),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2020년)라는 진술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과 비율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으로 나타났다. 5년이 지나는 사이 무자녀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누그러진 것이 분명해 보인다.

20~30대 청년층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결혼 생활에 대해 2015년 2.7점, 2020년 3.3점으로 평균 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조사의 경우 동거에 대한 태도와 유사하게 중립적 의견이라 할 수 있는 평균값 3점을 넘어섬은 물론 무자녀 결혼생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2020년 44.1%로 2015년(27.7%)에 비해 16.4%p 증가하였다.

비혼자녀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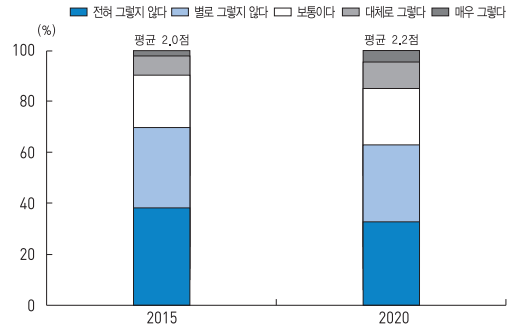
[그림 II-13]은 2015년과 2020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이다.

평균값은 2015년 2.0점, 2020년 2.2점으로 성인들은 앞서 살펴본 독신, 동거, 무자녀보다 비혼자녀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조사에서 성인의 3분의 2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동거, 무자녀와 마찬가지로 5년 사이 긍정적 인식('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은 5.3%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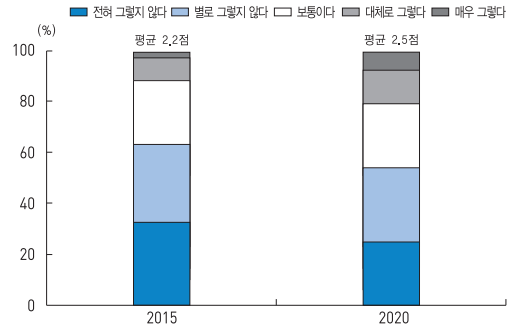
한편 2020년 조사에서 20~30대 청년 5명 중 1명은 결혼하지 않은 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지난 5년 사이 비혼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9.5%p나 증가하였다.

[그림 II-13] 비혼자녀에 대한 태도, 2015, 2020

1) 전체 성인



2) 20~30대 청년



주: 1) 통계치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도 괜찮다(2015년)",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2020년)라는 진술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과 비율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동거 생활과 계획

동거커플과 혼인부부의 인적 특성

최근 여러 가지 새로운 삶의 형식 중 동거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미혼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혼인연령도 증가하면서 많은 미혼 성인들이 주거의 독립을 이뤄냈다. 이에 따라 동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0년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커플 322명, 혼인신고를 한 혼인부부 1만 2,656명을 통해 동거생활과 혼인생활을 비교하고자 한다.¹⁾

다만, 분석 대상인 동거커플이 전체 동거커플을 대표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 보고서의 동거커플은 먼저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중 혼인신고 여부를 통해 선택되었다. 그러므로 동거를 하고 있지만 상대를 아직 배우자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분석 대상에서 누락된다. 그리고 동거 관계에 대해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아예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서 동거커플은 상대적으로 현재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나 결혼 가능성이 큰 사람들일 수 있다. 때문에 보고된 결과는 동거커플에 대한 참고사항 정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표 II-7〉은 혼인신고를 한 혼인부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커플들을 비교한 것이다.

성별 분포를 보면 혼인부부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50.4%와 49.6%이며, 동거커플은 50.1%와 49.9%이다. 연령분포를 보면 동거커플이 20대, 30대, 40대에서 그리고 혼인부부는 5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더 많았다.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 혼인부부가 각각 1.7%와 16.3%인데 비해

동거커플은 각각 17.4%와 28.6%나 된다. 동거는 혼인에 비해 나이가 훨씬 어린 성인들의 선택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교육수준을 보면 고등학교와 2년제 대학에서 동거커플이 혼인부부보다 더 많다. 취업 현황을 보면 혼인부부는 31.1%가 무직인데 비해 동거커플은 19.7%가 직장을

〈표 II-7〉 혼인부부와 동거커플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020

		(%)	
		혼인부부	동거커플
성별	남성	50.4	50.1
	여성	49.6	49.9
연령	20대	1.7	17.4
	30대	16.3	28.6
	40대	24.3	27.6
	50대	26.0	13.6
	60대	19.2	9.5
	70대 이상	12.4	3.3
	평균 연령(세)	53.1	42.5
교육	초등학교	8.7	2.1
	중학교	9.2	6.3
	고등학교	33.5	40.3
	대학교(4년제 미만)	16.4	19.6
	대학교(4년제 이상)	26.0	25.4
	대학원	6.3	6.3
고용형태 (중사상 지위)	무직	31.1	19.7
	정규직	37.9	45.9
	임시직	10.6	15.2
	자영업	17.4	15.9
	무급가족종사자	3.0	3.2
가구소득(점)		5.5	5.0
합계		100.0	100.0

주: 1) 배우자(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혼인부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동거커플'로 분류함.

2) 가구소득의 응답범주는 '1=50만원 미만', '2=50-100만원', '3=100-200만원 미만', '4=200-300만원 미만', '5=300-400만원 미만', '6=400-500만원 미만', '7=500-600만원 미만', '8=600-700만원 미만', '9=700만원 이상'까지 9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2020.

1) 이 조사는 사실혼, 비혼 동거 등을 포함해서 배우자가 있는지 물어본 후 혼인신고 여부에 대한 추가 질문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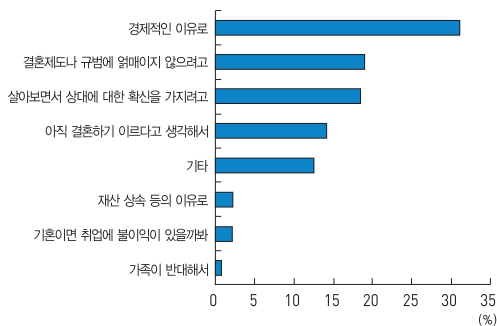


다니지 않고 있다.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는 혼인부와 동거커플의 비율이 비슷한 데 비해 정규직과 임시직은 동거커플이 약 12.6%p 정도 더 많다. 가구소득(9점 척도 평균값)은 동거커플이 5.0점인데 비해 혼인부부는 5.5점으로 혼인부부가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편이다.

동거하는 이유

[그림 II-14]는 동거커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그림 II-14] 동거커플의 동거 이유, 2020



주: 1) 배우자(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현재 동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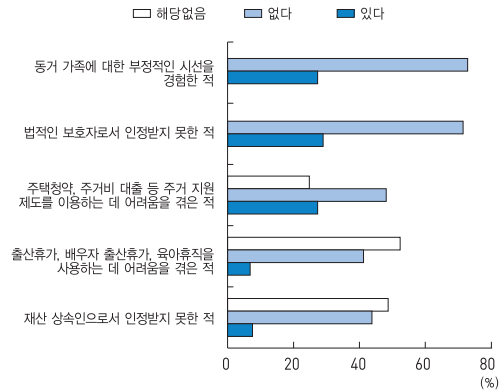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2020.

전체 중 가장 많은 31.1%가 ‘경제적인 이유’를 꼽았다. 다음으로 19.0%가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를, 그리고 18.4%가 ‘살아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를 선택했다. 14.1%는 ‘아직 결혼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하였다.

동거 때문에 겪는 불편

동거를 하면서 겪게 되는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그림 II-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15] 동거 때문에 느끼는 불편, 2020



주: 1) 배우자(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동거하면서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2020.

동거커플 28.7%가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27.3%가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27.1%가 주택 청약, 주거비 대출 등 주거 지원 제도에 이용에 제약을 느껴서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그 밖에 7.6%가 상속인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그리고 6.8%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혜택을 받지 못해서 어려웠다고 말했다. 주거지원제도, 휴가 제도, 상속 자격에 대해서는 각각 24.7%, 52.2%, 48.5%가 ‘해당없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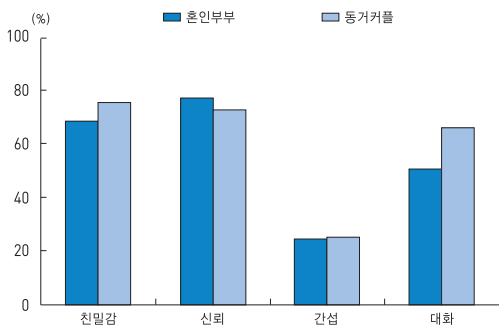
동거를 하고 있는 응답자들에게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인 부부가 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동거를 하고 있는 응답자 중 70.5%는 혼인

신고를 할 계획이 있으나 나머지 29.5%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동거커플과 혼인부부 비교

[그림 II-16]은 동거커플과 혼인부부의 배우자에 대한 친밀감, 신뢰, 간섭, 충분한 대화 정도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 II-16] 혼인부부와 동거커플의 배우자 관계, 2020



주: 1) 배우자(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혼인부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동거커플'로 분류함.
 2) 친밀감은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신뢰는 "배우자를 믿는다", 간섭은 "배우자에게 간섭을 하는 편이다", 대화는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한다"라는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줌.
 3) 통계치는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 중 '4=대체로 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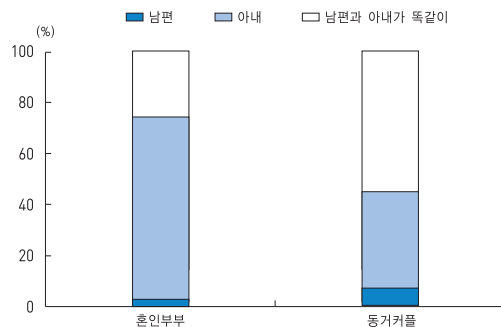
분석결과, 동거커플은 혼인부부에 비해 배우자에 대한 친밀감(7.1%p)과 충분한 대화(15.5%p)가 높은 데 반해 혼인부부는 동거커플에 비해 배우자에 대한 신뢰(4.5%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에 대한 간섭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사수행 방식에 있어서도 혼인부부와 동거커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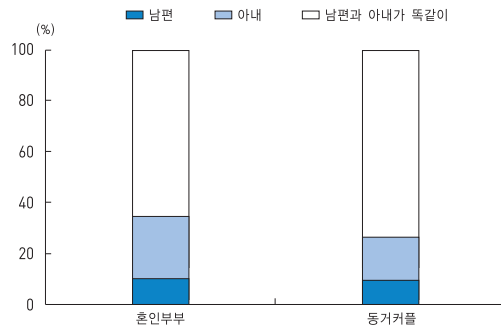
은 차이가 있다. [그림 II-17]에 따르면 성별 가사노동 분배에 있어 동거커플은 남녀평등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혼인부부는 아내가 주로 가사노동을 한다는 응답이 71.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17] 혼인부부와 동거커플의 가사수행 방식, 2020

1) 시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노동



2) 가족생활 유지를 위한 계획과 준비



주: 1) 배우자(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혼인부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동거커플'로 분류함.
 2) 통계치는 "귀댁의 가사 수행을 주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남편', '2=아내', '3=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중 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2020.

가족생활과 유지를 위한 계획과 준비는 혼인부부와 동거커플 모두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수행한



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 비율은 혼인부부가 65.5%인데 반해 동거커플은 73.7%로 8.2%p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18]은 혼인부부와 동거커플의 투자와 자산관리, 생활비 지출, 취업이나 직장 이동 등과 같은 삶의 결정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지 물어본 결과이다.

분석결과, 동거커플은 투자와 자산관리에 대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결정한다는 의견이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혼인부부도 동거커플과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36.3%)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남편이 결정한다는 의견 32.2%, 아내가 결정한다는 의견도 31.6%로 나타나 동거커플과는 투자와 자산관리에 있어 다른 양상이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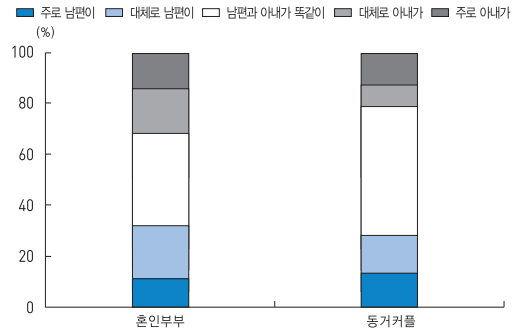
생활비 지출에 대한 결정은 혼인부부가 동거커플에 비해 아내가 더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54.8%)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거커플은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결정한다는 의견이 50.4%로 나타나 이 역시 남녀평등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취업 또는 직장이동에 대한 결정은 혼인부부가 '주로 남편'과 '대체로 남편'이 9.4%p 더 많은데 비해 동거커플은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가 18.5%p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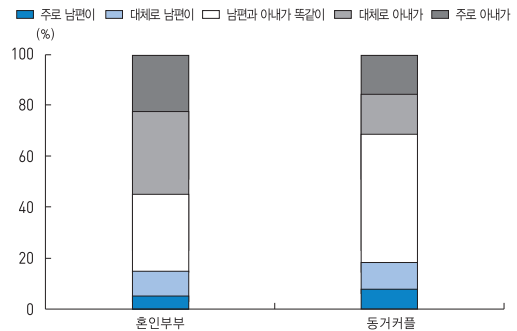
취업 또는 직장이동과 관련한 결정은 혼인부부와 동거커플 모두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결정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그 응답비율

[그림 II-18] 혼인부부와 동거커플의 경제적 차원의 결정,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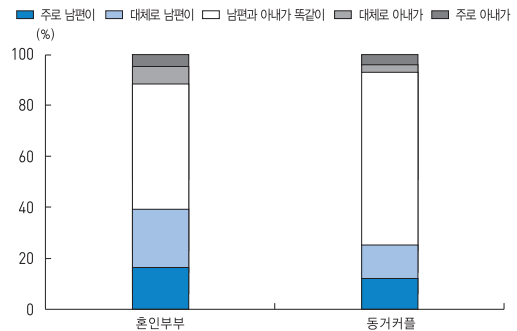
1) 투자와 자산 관리(금융, 부동산 등)



2) 생활비 지출



3) 취업, 직장 이동



주: 1) 배우자(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혼인부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동거커플'로 분류함.

2) 통계지는 "귀댁에서는 다음의 일을 누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주로 남편이', '2=대체로 남편이', '3=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4=대체로 아내가', '5=주로 아내가' 중 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2020.

은 차이가 있다. 혼인부부는 부부가 같이 결정한다는 의견이 49.1%, 남편이 결정한다는 의견이 39.1%인데 반해 동거커플은 부부가 같이 결정한다는 의견이 67.6%, 남편이 결정한다는 의견이 25.1%이다. 동거커플의 경우 경제적 차원에 대한 결정 역시 앞선 가사수행 방식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맺음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은 독신이나 동거 등 비혼 방식의 삶에 대해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물론 다양한 비혼방식에 대한 동의 정도에도 차이는 있다. 독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지만 비혼자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청년들은 독신, 동거, 무자녀, 비혼자녀에 대해 가능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이들은 결혼이나 출산 등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있다.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있는 청년들은 부모들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 이미 몇 가지 새로운 방식은 분명하게 관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생애미혼을

은 높아지고 무자녀 가족은 많아지고 있다. 젊은 세대의 개인적 선택은 한국 사회 미래에 큰 함의를 갖게 될 것이다.

비혼방식 중 하나인 동거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결혼 전 확신을 얻기 위해 선택된다. 혼인 부부에 비해 동거커플은 배우자와 대화도 더 많이 하고 더 친밀하다. 또 혼인부부보다 동거커플이 가사노동과 일상생활에서 남녀가 평등한 방식에 더 가깝다.

삶의 과정으로서 동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결혼 이전 단계(precursor to marriage)로 동거는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잠시 늦추고 있는 준비 단계 또는 결혼해도 좋을지 확인하는 테스트 과정이 된다. 두 번째, 결혼의 대안(alternative to marriage)으로 동거는 결혼 제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개인들이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단계로 기능하기도 한다. 본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동거는 결혼의 이전 단계 역할을 주로 하는 것 같다. 다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322명이 동거 중인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동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또는 곧 결혼으로 이전할 사람들로 편향(biased)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은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